

목표달리다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15대 회장에 전명자 씨 선출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전명자(사)한국걸스카웃 군산지회장이 선출됐다.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전명자 회장을 제15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2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고 밝혔다.



전명자 신임회장은 현재 (사)한국걸스카웃 군산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15대 임원진으로는 부회장에 노정호(한국여성소비자연협회)·황인주(패트볼림), 감사에는 임명희(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김봉례(대한적십자봉사회 군산지부) 씨가 각각 임명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범죄 취약지 공·폐가 일제수색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최근 범죄 취약지 공·폐가 등에 대한 방법진단 및 일제수색을 통하여 성범죄 등 척결에 앞장서고 주민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일제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빈집이 한나 실질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 건물은 관리대장에서 삭제 하고, 청소년 상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개소 출입문 미시정 등으로 범죄 사용에 가능한 취약개소, 사각지대 등 범죄 취약 개소를 집중 수색하여 개선·보안을 위한 정밀 방법진단을 실시했다.

중앙지구대장(경장 김용대)은 "범죄의 취약지인 공·폐가의 일제수색으로 주민들의 치안체감 안전도가 향상되고 공·폐가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범죄예방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립도서관, 3년 연속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 선정

군산립도서관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지원사업은 (재)한국도서관협회(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협력 기반을 마련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순회사서는 관내 3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자료선정 및 수집 정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담당자 실무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산=문정곤기자

# 경기침체 극복 방안 모색

## 군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간담회... 범시민 소비축진운동 동참 결의

군산시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공기관, 경제기관·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유통업체, 시민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경제 살리기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군산지역의 경제동향 설명에 이어 경기침체와 투자부진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 등을 토로했다.

또 내 고장 상품 애용,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확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추진 중인 다양한 시책 설명과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범시민 소비축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애용심을 갖고 지역업체와 지역물품을 우선 애용한다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이용하고 주말을 군산에서 보내기에 적극 동참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전한 소비생활로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간담회를 주재한 문동신 군산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노력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각층 대표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관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은 있

지만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적극적인 소비활동으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동참을 다짐했다

시민대표로 참석한 송미유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울하는 현대중공업 여파로 인해 힘든 한해가 될 것 같다"며 "이럴 때 일수록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 내 음식점 이용 등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4일 소비축진을 담당하는 문동신 시장의 서한문을 관내 1300여개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발송한데 이어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으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범시민 소비축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발행

###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등 4권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 총장)은 지난해 5월 원불교 개교 100년과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종교·문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학술총서 4권을 발행했다.

최근에 발행된 학술총서는 종교·정치·경제·생명' 등 4개 세션과 생명평화활동가 및 미래세대 종교청년 한미당 등 두 개의 특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 지난 국제학술대회 성과를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에서 엮은 것으로 후천개벽의 종교인 원불교 개

교(開敎 1916) 이래 100년의 적공(積功)과 원광대 건학(建學) 이래 70년간 축적해 온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대전환과 개벽의 길을 종합 정리했다.

총서는 제1권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 제2권 '종교 생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 제3권 '정치 경제의 대전환과 큰 적공', 제4권 '오래된 새길 영성'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권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개벽'은 현재 한국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고, 지난 1970년대 이래 원불교의 '비밀'에서 교리에 대한 독창적 해석과 문

제 제기를 계속해 온 백낙청 교수의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포함해 원불교 관련 저작이 집대성 돼 있다.

특히 총서 제권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환이라는 한국이 낳은 한 성자의 깨달음과 그 실천 내용을 화두 삼아 수십 년을 적공(積功)해 온 '대지의 지식인' 백낙청 교수의 원불교 공부론이자 교단 비평'에서 바라본 원불교론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권 '종교 생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은 문명의 방향을 찾아 나서는 문명의 화해 보고서로 희망의 프로젝트를 기록하고, 제3권 '정치 경제의 대전환과 큰 적공'은 자본주의의 위기 진단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제4권 '오래된 새길 영성'은 지역과 시민단체 현장에서 일해 온 생활자 30명의 자생적 풀뿌리 생명 평화 담론이 담겨있다.

/익산=정왕원기자

## 익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 정기총회 개최

익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는 지난 19일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추진단 직원들과 주민공동협의체 회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부회장 문화공동체와 도시공동체 분과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또한 사업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임원진과 문화공동체, 도시공동체 분과로 조직을 편성해 한층

더 조직역량을 강화시켰다. 회원들은 각각의 관심분야와 활동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정기총회까지 분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코디네이터로 선정된 오민근 박사는 전북도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포럼 기획위원, 순천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역임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오민근 총괄코디네이터는 "협의체

회원들이 가진 원도삼지역의 삶과 역사를 총괄코디가 가진 학문적 지식과 융합하여 익산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근대 역사건조물 재활용 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미래 후손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 군산시, 설 명절 앞두고 어려운 이웃 위한 사랑의 손길 이어져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20일 군산지역의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산시 직영 환경미화원들은 군산시를 방문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담과 성금 225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한한돈협회 군산지부도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전해 달라며 한돈 1000kg(600만원 상당)을 군산시에 기탁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지점에서도 개장전 소제 총량바를 노인

회관 및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90만원을 전달하고 노인회관과 복지시설 주변 환경미화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흥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성금 100만원을, 군산시산거관미화위원회에서 성금 2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흥남동주민센터에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군산시, 관광 스토리텔링북 발간

군산시가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굴 누구나 읽기 쉬운 스토리텔링북 시간을 건너 군산에 빠지다를 발간했다.

스토리텔링북은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스토리텔링 용역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역사·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교수 등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발간됐다.

여행자들이 한눈에 들고 다닐만한 크기의 스토리텔링북은 주요 관광명소와 근대건축물의 역사를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산의 항일정신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와 먹거리, 군산을 빛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



사진자료와 함께 책자에 담겨 있다. 군산시는 스토리텔링북을 통해 국내 최대의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군산의 가치와 고유한 이야기를 전국에 널리 알릴 300만 관광객 시대 달성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시의회, 2017 신년하례회 개최

익산시와 익산시 의회는 지난 20일 2017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소병용 익산시의회 의장, 국·소·단장, 시의원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새해를 맞아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익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다지기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7년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양대축으로 시민이 행복을 품격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